의회

제9대 성동구의회 4년간의 의정활동 마침표

제9대 성동구의회가 오는 6월 말, 4년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의정활동을 마무리합니다.
지난 2022년 7월 출발한 제9대 성동구의회는 다선 의원들의 경험과 노하우에 초선 의원들의 열정과 참신함이 더해져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14명의 의원들은 현장 중심의 발로 뛰는 의정을 실천하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예산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집행부를 견제 · 감시하는 역할도 충실히 해냈습니다.
아울러, 의원들 간 소통과 협력을 다지고 개개인의 역량 강화에도 힘써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역 경제 회복, 복지 사각지대 해소, 교육 · 문화 인프라 확충 등 시급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160여 건의 의원발의 조례... 입법 기관으로서의 전문성 강화

제9대 성동구의회는 임기 동안 총 156건의 의원발의 조례를 쏟아내며 의회 본연의 역할인 입법 활동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단순한 행정 지원을 넘어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구민 안전 등 실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맞춰 고립청년 및 난임부부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경계선지능인 및 발달장애인 등 사회적약자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며 정책 의회로서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5분 발언 75건·구정질문 11건... 구민 목소리 정책에 담아

구정의 감시자와 견제자로서의 역할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의원들은 총 75건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정 운영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창의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11건의 '구정질문'을 통해 주요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독려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 같은 활동은 현장의 작은 목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고 구정에 반영하려는 의원들의 열정과 전문적인 의정 지원 시스템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제9대 성동구의회 임기를 마치며... 구민의 성원 덕분에 완주, 성동의 미래 응원

지난 4년 동안 제9대 성동구의회에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비록 임기는 끝나지만 성동구의회는 앞으로도 구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더 행복한 성동'을 만드는 여정에 늘 함께할 것입니다. 오는 7월 개원하는 제10대 성동구의회에도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민에게 신뢰받고
구민에게 힘이 되는
성동구의회가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일동